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3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2(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3. 2(화)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최진혁 과장(044-203-5620)	담 당 자	최승효 사무관(044-203-5624)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환경 · 디지털 등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3.2(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 **WTO「무역과 환경」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 **CPTPP 관련 국내제도 개선계획**

○ **'21년도 FT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붙임)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 (별첨) WTO「무역과 환경」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최승효 사무관(☎ 044-203-56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금번 통추위 개최 배경】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통추위에서 CPTPP 등을 논의한바 있으며,
금번 회의는 환경, 디지털, FTA 등에서
최근 변화에 따른 우리 대응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통상의 영역이 시장개방을 넘어 환경, 디지털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과제에 대응하여
통상규범의 역할과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리협정 복귀로 글로벌 기후공조가 본격화되고,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WTO, G20, APEC 등에서도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은 시장개방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탄소국경세 등 일방적 무역조치는 갈등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선도국 위상에 걸맞게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통상규범 분야에서는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전되는 가운데
미국은 USMCA 등에서 데이터 자유화 수준을 높였으며
싱가폴, 뉴질랜드 등은 중견국간 디지털협정을 체결하여
핀테크, 인공지능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통상규범 흐름에 맞추어
CPTPP 등 글로벌 규범수준을 국내제도에 적극 반영하고
한-싱 디지털협정 등에서 조기 성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감안, 금년도 통상분야에서는
메가 FTA, 신흥시장 FTA, WTO 협상 등에 적극 대응하면서
환경, 디지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금번 통추위 주요 논의내용】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❶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과 함께,
❷ CPTPP 관련 국내제도 개선계획과
❸ '21년도 FTA 추진계획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안건 일부공개)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여
우리의 통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WTO, G20, APEC 등 다자통상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출범하여
이번주 금요일 공식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의체(TESSD*)에서

* the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친환경 상품과 환경 서비스의 시장개방 확대,
탄소국경세 등 환경조치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운영 등을
포함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향후 WTO 이니셔티브 성과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여타 다자협의체로 확산시키는 등
WTO로 대표되는 다자체제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CPTPP 관련 국내제도 개선계획**』입니다.
(안건 제목만 공개)

지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후,

통상교섭본부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CPTPP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내제도 정비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디지털 통상 등 분야에 대해
CPTPP 규범 수준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CPTPP 가입 검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규범 선진화 논의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위생 및 검역, 국영기업 등 여타 규범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은 『**'21년도 FTA 추진계획**』입니다.
(안건 제목만 공개)

우리나라는 작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FTA인 RCEP 서명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초에는 캄보디아와의 FTA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기존 신남방 국가에 이어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 투자 등 해외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등
FTA 네트워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개 안건 모두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